

2면에 이어서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 2) 감람나무 원체와 가지의 관계: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전도관 역사는 박태선 장로를 성령의 3단계를 거쳐 '이슬은혜'를 내리는 감람나무 원체로 인정하면서도, 원체와 가지 사이에는 본질적인 은혜의 수준과 완성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원체보다 그로부터 비롯된 '가지'의 은혜 수준이 더 월등하다는 사실입니다.

### ① 감람나무 원체의 불안전성 - 『굵은 베옷』

“...내가 나의 두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세상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나...” 『계11:3-4』

요한계시록 11장 3-4절에 언급된 '두 증인'이자 '두 감람나무'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이는 감람나무 원체가 비록 이슬성령을 처음으로 받아 출현한 존재일지라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이긴자'임을 상징합니다. 즉, 원체는 완성의 존재가 아닌 미완성의 상태로 출현한 것입니다.

### ② 감람나무 가지의 완전성 - 『빛난 세마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라...그 아내(新婦신부)가 은혜를 받아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細麻布)를 입었은즉...” - 『계19:6-8』

반면, 요한계시록 19장 6-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체가 입은 굵은 베옷이 미완성을 의미한다면, 가지가 입은 세마포는 완벽하게 완성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

서 감람나무 원체는 스스로 완성을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가지'를 통해 비로소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 ③ 원체의 구원 조건과 가지의 역할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감람나무 원체인 박태선 장로의 구원 여부 또한 '가지'의 출현에 달려 있게 됩니다. 박 장로께서 제3신앙촌 시절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이야”라고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본인이 미완성자로서 '완성자인 가지'가 출현해야만 본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 ④ 구세주로 출현하는 가지

결국 감람나무 원체는 가지를 출현시키기 위한 토대이며, 실제 구원을 완성하고 구세주로 등극하는 존재는 원체로부터 나온 '가지(이긴자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은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여호와의 정직한 도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14:9)

### ⑤ 두 감람나무 또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

박태선 영모님은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 또는 '한 감람나무'로 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다고 밝혀셨습니다. 특히 <두 분(두 감람나



무)으로 나타나면 악조건이나, (한 분(한 감람나무)으로 나타나면 호조건이라 설명하셨는데, 이는 『격암유록』 <몽궁가>의 『말세이수혹일인(末世二樹或一人)』이라는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萬世不變安心處(만세불변안심처) 末世二樹或一人(말세이수혹일인) 萬世(만세) 春光一樹花(춘광일수화) - 『壽昌歌몽궁가』

“천만년 가도 변치 않는 안심처에 말세의 주인공으로 두 감람나무이거나 혹은 한 감람나무로 오시는구나. 만세의 춘광(春光) 즉 세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어 오시는 구세주는 마치 한 감람나무에 핀 한송이 꽃과 같구나!”

여기서 '춘(春)'자는 삼인일(三人日), 즉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오시는 구세주를 상징하며, 이는 한 감람나무에 핀 꽃과 같다고 묘사됩니다.

실제로 박태선 영모님은 한 분의 감람나무로 출현하셨기에 인류 역사는 호조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스기라서(4:11~14)를 보면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와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 분의 감람나무가 출현했다는 것은 성경 구절 중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의 역사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 분으로 오신 영모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키워내시는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이자 최고의 선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기에 과거 예수와 자칭 재림 예수 같은 거짓 존재들이 세상을 미혹할 수 있었으나, 진짜 구세주인 감람나무가 출현함에 따라 가짜는 결국 빛을 잃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 三. 누가 아담 이긴자 구세주이신가?

- 1) 감람나무 원체인 영모님은 잃었던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으시는데 이들 중 아담 이긴자가 완성자 구세주로 출현하신다
- 2) 감람나무의 가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구세주 조희성
- 3) 격암유록 속의 감람나무
- 4) 가슴 아픈 감람(橄欖)나무의 수난

### 三. 누가 아담 이긴자 구세주이신가?

- 1) 감람나무 원체인 영모님은 잃었던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으시는데 이들 중 아담 이긴자가 완성자 구세주로 출현하신다

박태선 영모님의 전도관 역사는 단순한 종교적 세력을 넓히는 과정이 아니라, 잃어버린 구세주를 찾아 키워내는 사명을 수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영모님은 '엄마의 심정으로 해산의 수고를 다하며 에덴동산에서 상실했던 인류의 조상, 즉 아담과 해와라는 '두 가지를 찾는 데 전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아담, 해와는 피와 모양이 동일한 세 분의 하나님이었으나, 타락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삼수의 원리가 하나님 · 아담 · 해와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가 똑같은 것은 셋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던 것이다. 어디도 틀린 것이 없었다. 머리카락도 같은 것이다” 『82. 3. 8. 신앙신보\_영모님 말씀』

박태선 영모님은 첫 번째 하나님인 '감람나무 원체로서 이 땅에 출현하여, 에덴에서 잃어버린 두 하나님(아담과 해와)을 다시 찾아 하나로 합치는 역사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의 실체이며, 세 분의 하나님이 다시 출현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의 종착점은 삼위일체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3:21』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언급된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의자가 아닌 영적인 합일을 뜻합니다.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 번째 하나님인 박태선 영모님이 두 번째 하나님인 '해와 이긴자'와 합일하여 2인 일체를 이룹니다.

② 이 2인 일체의 신이 다시 '아담 이긴자'에게 합일됨으로써 최종적인 '3인 1체(=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합일되어 출현하신 분이 바로 인류가 고대하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의 몸 자체가 곧 세 분의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세주는 오해 중금(鎗)의 기운을 타고 '금운(金運)'으로 오시는데, 금운을 상징하는 색이 백색이기에 성경과 격암유록의 성운론(聖運論)에서는 이를 '백보좌(흰 보좌)'라고 칭합니다.

결국 전도관의 역사는 감람나무 원체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이긴자를 통해 백보좌의 주인공인 완성된 구세주를 세상에 드러내는 섭리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

# 권세와 권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오는 맨 꼬리

## 2) 감람나무의 가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구세주 조희성

### ① 성경적 근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르면, “첫 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다 하였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神=靈)이 되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패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첫 아담과 달리, 마지막에 나타나는 둘째 아담은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려주는 신(神)'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인류 구원의 열쇠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구세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 ② 박태선 영모의 증언과 두 가지의 역사

감람나무의 본체인 박태선 영모님은 영적 엄마의 입장에서 해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을 찾아 세우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감람나무의 두 가지 중에서도 특히 아담 하나님이 구세주의 실체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박태선 영모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영모님은 과거 소사 밀실에서의 역사를 회고하며 “두 달 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굉장하 쉰 흥”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소사 밀실에서 아담과 해와의 형상을 입은 두 의인이 출현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특히 영모님은 이들 중 마지막으로 출현한 아담 이긴자를 가리켜 '맨 꼬리'라 칭하셨습니다.

### ③ '맨 꼬리' 가지의 권능과 조희성 주님

박태선 영모님은 이 '맨 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권세와 권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오는 맨 꼬리를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내 가지를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조희성이 그게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 인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문선명보다 굉장하 쉰 것을 한다 이거야.”

여기서 언급된 '맨 꼬리'이자 영모님의 가지가 바로 조희성 주님임을 영모님께서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영모님은 “조희성이 그게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 인 장난이 아니고”라고 말씀하시며, 조희성 주님이 펼치시는 역사가 결코 사탄(마귀)의 장난이 아닌, 하나님의 완성된 역사를 이루시는 구세주의 행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④ 인류의 소망, 구세주의 탄생

결국, 감람나무 본체인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은 조희성 주님이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아담이자 인류를 살려주는 영적 실체임을 확증해 줍니다. 조희성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구세주로 탄생하셨으며, 그분만이 가진 무한한 창조력과 권능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는 본체인 영모님의 증언이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희성 주님이 구세주로서 걸어오신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역사의 단계를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 3) 격암유록 속의 감람나무

이제 독자 여러분들은 감람나무는 구세주요

정도령(正道令)이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에 보면 역시 감람나무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고 '감나무시(柸)'를 써서 감람나무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사고 선생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㉔ 柸木扶人(시목부인) 皆之柸木之林(개지시목지림) - 『世論時來문』 “감람나무를 따르는 자 모두 감람나무 숲을 이룬다.”

㉕ 天地合運出柸木(천지합운출시목) 弓乙兩白十勝出(궁을양백십승출) - 『鷄龍論계룡론』 “천지의 운이 합하여 감람나무로 나오시니 궁을양백인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

㉖ 天授大命(천수대명) 似人非人(사인비인) 柸似真人(시사진인) - 『賽說41장』 “그분은 하늘의 큰 사명을 맡은 분인데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다.”

㉗ 柸謀者生(시모자생) 衆謀者死(중모자사) - 『末運論말운론』 “감람나무로 도모하는 자는 살 것이요, 세상 무리들과 도모하는 자는 죽으리라”

㉘ 天縱大聖鷄龍(천종대성계룡)으로 蓮花世界鄭氏王(연화세계정씨왕)을 平和相微橄柸字(평화상미정씨왕)로 柸謀者生傳(시모자생전)했다네 - 『桃符神人道부신인』 “하늘이 세운 대성인이며 계룡으로 연화세계(극락)의 정서 왕을 상호 간에 평화를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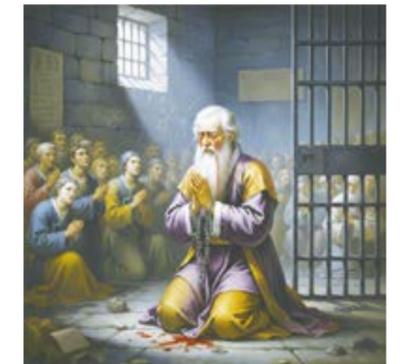
구하는 감람나무(橄) 감나무(柸)의 이름으로 표현하였나니 감(람)나무를 피하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전했다네.”

### 4) 가슴 아픈 감람(橄欖)나무의 수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이자 '마지막 아담(고전15:45)'이신 조희성 주님의 「7년 옥고(1994-2000)」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희성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희성 주님께서도 '실제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치른 7년 옥고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수난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막힌 7년 옥고중난은 성경에 예언된 '7년 대환란'에 해당하며, 조희성님이 인류를 위하여 몸소 치르신 역사적인 수난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밀실에서의 연단 시에도 조희성님은 그곳에서 '아마켓돈 전쟁'을 몸소 치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마켓돈 전쟁과 7년 대환란을 인류의 구세주 조희성님

1 “하나님이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바로 인간 속에 있는 '나'는 의식의 마귀와 더불어 투쟁을 하여 싸워서 이기는 그 과정이 아마켓돈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구세주가 마귀와 더불어 최후 담판전을 짓는, 바로 그 옛날에 아담과 해와를 점령한 그 대장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그 대장 마귀를 이기고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린 고로 그런 고로 공중권세를 쥐고 이제 좌지우지하던 그 대장마귀를 죽여서 없애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산당도 없애 버릴 수가 있고, 태풍도 못 오게 할 수 있고, 비도 못 오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마귀가 하던 짓이에요. 마귀가 비도 내리고 마귀가 태풍도 불어오게 하고 마귀가 이제 공산주의도 만든 것이에요.”



이 몸소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17: 6)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사24:13)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몸소 7년 대환란을 치르고 계실 때, 당신의 지식들은 무수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구세주 조희성님은 기막힌 옥중 7년 대환란을 치르시면서도 당신의 지식들을 영적으로 지켜 주시어 당신의 영적 지식들이 상당수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7년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구세주의 지식들은 앞으로 승리대장의 후군이 되어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승리대장의 잘 조련된 승리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